



김진형 남원시장, 이백면 충훈비 참배

신임 김진형 남원경찰서장은 취임 이튿날인 17일 남원시 이백면의 충훈비를 찾아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  
이백면 충훈비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백면 출신 호국영령 51위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이다. 이 자리에서 김진형 서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남원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남원시는 1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공무원, 연구원, IT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향을 마련하는 4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남원시는 2기부터 5기까지 자체수립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내장상동 칠보암, 이웃에 백미 나눔 실천

정읍시 내장상동 소재 칠보암(주지 진월스님)은 1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백미 300kg(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칠보암은 매년 추석 명절을 즈음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백미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진월 주지스님은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고 길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중, '남자중학부 단체전' 우승

베드민턴부 '전국 최강' 입증

정읍중학교 베드민턴 선수단이 2022 전국학교 대항 베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읍중학교는 지난 16일 열린 남자중학부 결승전에서 인천 육련중학교를 만나 세트스코어 3대2 접전 끝에 물리치고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단체전 1차전 경기에서 정읍중학교 김태현 선수가 육련중학교 김태호 선수를 2대0으로 꺾었다. 이어진 2차전에서 최재상 선수가 육련중 손정환 선수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기세를 이어갔다.  
복식 1, 2차전에서 정읍중학교는 육련중학교에 연달아 승리를 내주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최종 단식에서 이민재 선수가 안상립 선수를 2대0으로 이기며 전국 베드민턴 최강을 입증했다.  
전국학교 대항 베드민턴선수권대회'는 한국중·고베드민턴연맹의 주최로 매년 열리는 전국대회다.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남 화순 하나운동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96



개 팀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친다.  
경기종목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개인전은 남녀단식과 남녀 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누어 펼쳐진다.  
정읍시 베드민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선수들 간의 단합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촌동주민자치위, 지역아동센터 2곳 간식 전달

지난 16일, 조촌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국창원)는 조촌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2곳(전광, 화북)에 아동들이 즐겁고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30만 원 상당의 통닭과 피자를 전달했다.  
조촌동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에도 지역아동센터에 계란, 과자류, 컵라면, 화북에 아동들이 즐겁고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30만 원 상당의 통닭과 피자(반월, 원동, 용덕) 아동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연시와 명절에는 관내 경로당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백미, 생필품, 김장김치 등을 전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57정에 은누리상품권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조촌동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동민들의 화합을 위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국창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즐겁게 간식시간을 가지며 잠시나마 웃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환 조촌동장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맛있는 간식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조촌동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주민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영양교육 실시

진안군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6일~22일까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연령대임을 고려해 '뼈 건강'에 중점을 두고, 외부강사를 초빙해 요리 실습과 영양 식이요법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주변에 흔하게 있는 감자, 양파, 파프리카 등을 활용한 '떡볶이 감자피자 만들기'를 함께 만들며 "맛도 좋고 만들기 쉬운 요리"고 말했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바른 먹거리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노년기 뼈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을 익혀 건강한 몸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고 야구부, 대통령배 대회 준우승

전주고 야구부가 창단 첫 대통령배 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어렵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1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전주고는 대전고와 접전을 벌였지만 4대 7로 어렵게 패했다.  
이 대회에 출전한 전주고는 끈질긴 집중력과 투지로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1점차 승리,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며 결승에 올랐다.  
이는 1985년 황금사자기 대회 이후 37년만에 전국대회 결승 진출이자 대통령배 대회 창단 첫 결승 진출이었다.  
하지만 이날 결승에서 투터의 완벽한 조화를 보인 대전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비록 우승컵은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전주고 야구부의 투혼은 전북 야구의 전망을 밝게 했다. /정은성 기자

## 익산시청 펜싱팀, 전국대회서 금빛 사냥 성공

1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62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대회'에서 익산시청 펜싱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 나선 익산시청은 결승에서 해남군청을 상대로 45대 41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대전시청을 45대 38로 이기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어 남자 에페 개인전에 나선 구영모는 4강전에서 1점 차로 어렵게 패하며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북펜싱협회 윤길우 회장은 "전북 펜싱이 전국 최강임을 입증한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좋은 성적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9월 익산에서 국가대표선발전이 열리는 만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9월 익산에서 국가대표선발전이 열리는 만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